

지역 소식통



김제시,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 캠페인 진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전북 옥외광고협회 김제시지부 회원들과 함께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 및 Clean-Sing 캠페인을 16일 오전 8시 터미널 사거리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로 쾌적한 도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제(회)회 전북도민체육대회'를 만들며, 광고주의 광고물 적법 표시를 위해 광고물 허가·신고 방법 및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안내문을 배부하고, 대출명함 및 불법 현수막 제거 등 거리 환경정비도 병행하여 실시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불법 옥외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여행체험관광 상품 마련... 31일까지

김제시는 아름다운 경관(뷰티풀) 맛있는 먹거리(원더풀) 재미있는 체험(조이풀) 등으로 구성된 컬러풀한 김제의 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체험관광 상품(김제스테이케이션)을 마련해 31일까지 운영한다.

이는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전북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당일형 및 체류형으로 구분하여 김제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행경비 40%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시 일주일만에 신청자가 20%를 웃돌고 있을 정도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신청자의 SNS 홍보 등으로 신청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호우피해 복구 작업에 '탄력'·주민들, 추가지원 혜택 유 군수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신속 재해복구 노력"

지난달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복구 작업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완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완주군은 19억5,300만원의 국비 추가지원과 피해 주민들에게 12개 항목의 간접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완주군은 19억5,300만원의 국비 추가지원과 피해 주민들에게 12개 항목의 간접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추가지원으로 공공시설 피해복구비도 기존 국비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될 전망이다. 군비 부담이 줄어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등 기존 지원 외에

도 건강보험료, 통신,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등 12개의 추가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군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농업·임업·소상공인 등의 일상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군은 정부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화산면의 고산천, 석학천 성북천 근본적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복구를 건의하고, 타 지역 하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완주군에는 평균 489.4mm의 비가 내렸으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 피해액은 약 102억원(공공시설 63억

4,500만원, 사유시설 38억3,300만원), 복구비는 237억900만원이 잠정 확정됐다.

군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조사를 면밀히하고도 신속히 진행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었다. 또한 전북도에서도 완주군 전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기까지 직원들과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매몰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신속한 재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삼례역에 전라선 ITX 정차

내달 1일부터 1일 2회... 수도권 거주 우석대 학생 이동권 확보

완주군은 내달 1일부터 삼례역에 ITX-새마을호가 1일 2회(상행 1, 하행 1) 정차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수~익산을 운행하는 ITX-새마을호는 왕복 2회 운행 중으로 그동안 삼례역에는 정차하지 않았다.

ITX-새마을호가 정차되면서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높아지고, 인근 우석대학교의 수도권 거주 학생들의 이동권도 확보될 수 있게 됐다.

특히, 유희태 군수가 삼례읍이 교통거점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

석대 후원을 중심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추진한 것이 ITX 삼례역 정차를 이끈 원동력이 됐다.

현재 완주군은 700대의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했으며, 1,000대를 목표로 규모를 늘려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군은 삼례역 KTX 정차를 위해 KTX가 정차하는 김제시를 방문하고,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에 KTX 정차를 재차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유 군수는 전북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삼례역 KTX, SRT 정차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군은 에코레일, 국악위인열차, 농부레일, 임시관광열차 등 테마형 관광열차를 유치해 삼례역 정차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전거로 민경강길을 즐기는 에코레일의 삼례역 정차를 확정짓기도 했다.

유희태 군수는 "운곡지구, 삼봉자구의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과 향후 수소특화국가산단이 조성되면 교통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며 "이번 ITX 삼례역 정차는 KTX 정차를 위한 첫발 걸음으로 완주군의 교통체계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양돈밀집단지 가축방역 강화

국내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2019년 9월 16일 경기도 파주 첫 발생 이후 지난달 18일 강원도 철원 발생을 포함 총 37건의 발생이 보고됐다.

특히 2023년 농장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개 시도 4개 시·군에서 9건이 잇따라 발생하였고, 농장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야생멧돼지 발생은 8월 7일 현재 총 3,171건으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충북 보은, 경북 상주까지 남서쪽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충북 보은에서 전북 무주까

지의 거리가 불과 30여km에 불과하여 전북 모든 시·군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돼, 지난 3일부터 용지 신암 양돈밀집단지에 소독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차단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신암마을 소독 통제초소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2명을 선발 배치해 차량내·외부 소독과 운전자 등 축산관계 출입자에 대한 대인소독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차단방역을 위해 차량 전용 소독시설과 대인소독시설을 갖추고 주 6일(월~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소독·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신암마을 밀집단지 가축 사육농가(25농가 4만3,000두 규모)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김제시의 소독통제초소 설치와 적극적인 방역 추진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으며, 농가 소독과 외부인 통제 등 방역 수칙 준수와 실천을 약속했다.

한편 김제시는 선제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거점소독시설 2개소(황산거점시장 도드람)를 상시 운영하고, 밀집단지에 방역소독차량 2대를 투입해 농장간 골목 도로까지 소독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매개체인 유헤야생동물 멧돼지 331마리를 집중 포획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16일 향만 및 물류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김제시신항만발전위원회 위원들과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 신항만 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2026년 새만금 신항 개항 대비

김제시, 신항만 발전위원회 개최... 신규 항만정책 논의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6일 향만 및 물류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김제시신항만발전위원회 위원들과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 신항만 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새만금 신항 2선석 개항에 대비해 현대적 기조에 맞고 인근 군산항과 차별화된 특성화 항만으로 조성을 위한 김제시 항만정책과 해양항만분야 주요 현안업무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그동안 김제시는 지난 2021년 김제시신항만발전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항만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인근 항만과의 상생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새만금 신항 특성화전략 타당성조사 연구'를 선제적으로 완료하여 국외와 해수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건의

하였고 지난 3월 제29차 새만금위원회에서 논의 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김제시는 올해 역시 항만 분야 전문가 자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및 지역 정치권과 공조하여 해양수산부의 항만정책 기본방향에 부합한 새만금 신항의 경쟁력 강화와 신항만과 연계한 김제시 미래산업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는 앞으로 새만금 신항의 성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며 "김제시가 새만금 신항과 함께 글로벌 해양중심도시로 더욱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21일부터 완주 이서지역 마을버스 노선 개편

21·24번, 양우내안에·신일해피트리 공동주택 경유 운행

완주 이서지역을 운행 중인 마을버스(부릉부릉~)가 오는 21일부터 이서 양우내안에와 신일해피트리 공동주택을 추가적으로 경유 운행한다.

그동안 양우내안에 주민들은 마을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버스정류장까지 800m정도를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완주군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결과, 기존 완주 마을버스 21·24번이 양우내안에 및 신일해피트리 공동주택을 경유 운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번 노선 개편으로 신규 공동주택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향상돼 주민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서지역 완주 마을버스 22번 23번 노선이 통합돼 운행된다.

전주시 및 전주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재정부담 완화, 혁신·만성지구 버스 증회를 위한 노선조정 요구로 시내버스 일부 노선(200, 220번)의 종점지가 변경하는 대신 이용자가 많은 165번 노선 운행횟수를 증회해 이용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완주군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과 시간표를 담은 안내책자를 제작해 배부하고 마을방송을 하는 등 노선개편에 관련한 홍보에 나선다.

장일석 도로교통과장은 "완주 마을버스가 신규 공동주택 입주지역에 추가적으로 운행하면서 주민 분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마을버스 이용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